

(즈근돌) 오늘 하오십일시에 졸업례식을 혼디요  
정숙이가 그청첩을 떼여보니 속사판에 박힌청첩인디

금일 하오십일시에 본교졸업례식을 서부반송방 학교에서 기최홀터이니  
졸업생들은 계괴너출몰스

년 월 일

녀학교장 ○○○○

리정숙

좌하

라하엿는지라

(정) 에그 이상하지 졸업례식을 웨 밤에하누

(섬) 쉼네가 물으닛가 녀학교 졸업례식에는 지상가 부인들이 오시는고로  
밤에 혼다고히요

(부인) 참 그말이을치 졸업례식이 안이라 그보다더 혼 귀경이라도 낮에 혼  
다면 나 도 안이가갇다

이의 즈근돌아 오늘은 즈근아씨를 녀하교 섬월이가 되시고 가거라

(즈근돌) 네 소인이 되시고 갑시오

(섬) 에그 도화라 오늘은 도혼 귀경을 하갇지

열흔시가 언제나 되나

이썩는 스월이라 히만떠러지면 열마안되여 십일시가 되는고로 부인은 부  
산하계 정숙이가 학교에갈 제구를 출이며 섬월이와 귀스속쌈스이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갇다고 지축을 성화갇치혼다

이의 박집아 어서가거라 시간을 어괴면 쓰갇지

어서가져 졸업장을 타가지고 오너라 구경솔하계

정숙이는 공연이 살이떨니며 마음이 뒤송스하여 시름업시 안젧다가 부인노  
쥬지축하는바름에 천연이 니러나서 섬월을 불으다가 못뚝 금년의 싹각을  
하교 눈물이 글성스스하며 섬월을 다리고 나서니 즈근돌이는 맛춤터령하교  
잇다가 압서인도하는지라

(정) 즈근돌아 반송방이 어디나

(즈) 서소문밭이을시다

(정) 그러면 밤비가 저 시간이 느질나

하며 열마썸갓던지 서소문을 나서서 큰길로는 안이가고 성밋길로 켜불々々 돌아 들어가니 정숙은 어인지도 몰르고 저근돌만싸러 어느집압으로 지나더니 그집 대문압에 끼는 작달막하고 얼골은 악죽々々흔 노파흔아이 셋다가 등불빛에 섬월을보고 반석하야 인사를하는지라 섬월이도 역시 반석을흔며

에그 마누라님이 엇지여과 제셔오

마누라님 제신탕아 여과오닛가

(노파) 웨인제야 알았나 여과라네

오늘 저학교에서 졸업례식을 한다노되 구경이 장하대기 우리 마님을 피시고 갔더니 아죽도 시간이 못되엿다고 학교문을 열지안이 하엿길네 돌오오다가 마님은 어디 잠잔 달거오신다고 하시는고로 나는 먼저 오는길 이러니 저네를 맛났네그러

그러나 저네는 밤중에 어디를가나

(섬) 아 그러신줄 누가알았나 나는 저근아씨 피시고 학교에 가는길이에요

(노) 저근아씨 뉘딕저근아씨

(섬) 압다 우리딕 저근아씨요

(노) 아 그러면 리츨판딕 저근아씨로구면

올치 학교에 단기신다기 어니학교인가 하엿더니

상푸등 저학교든게지

이썸 정숙이는 압만보고 가다가 섬월과 노파가 슈작하느중에 잠간셔々 슈작을 들어도 학교에는 아죽 시간이 일은 모양이라 진퇴가 량난이 되엿더니 섬월이가 압흐로 닥아서며

에그 저근아씨 여과가 술동마々딕이리요

저할멈은 술동마々딕에 잇는스름이올시다

섬월의 말이긋치기전에 그노파가 먼저와셔 정답게 인사를흔다

이저근아씨가 리츨판딕 저근아씨시란말이야

에그참어엿부기도 하시지

우리 마々님이 일상 입에 침이업시 총찬을 하시더니 참 그러신걸

학교에 단기시라면 날마다 우리딴을 지나단기섯겟지

정숙이 숲동마닥이 딴 소리에 반석하여

그리 저네가 숲동마닥에 잇는스름인가

(노) 하하하 그러습시다

아죽학교에 가서 쓸티업스니 잠간들어가시지요

마하님도 곳오습시다

정숙이 생각에도 학교에 미리가 기다리기도 창피하든츠 다름집 갓흐면 들  
어가저 안일것이나 숲동마하는 정숙을 길너닐뿐더러 위인도 청고흔지라 집  
이 서소문밭이란말을 들엇든코로 노파를싸라 들어가니 집은 조고마하나 심  
히 정결하고 세간도 제법 치장을 하엿더라

(노) 방에 들어가 안저 계십시오

마하님은 곳엿쥬어 오겟습시다

정숙은 의심안코 티연무심히안저 숲동마하 오기만 기다리나 숲동마하는 그  
림지도업고 어언간에 열흔점을치니

(정) 섬월아 학교에 가보아라

(섬) 지금가서 본죽 아죽도 감하히요

(정) 웬일이야 졸업식을 식벽에 하랴나 설하하

(섬) 숲동마하는 웨안이오시나

하면서 별썰년갓치 뒤도안이돌아보고 허둥지둥 나가더니 몇분동안이 안되  
여 대문소리가 짹짹하더니

저벅벅소리가 나며 방문이 쏙 열니는지라 정숙이는 흑간 숲동마하가 오  
는가하야 고기를 치어들어보니 숲동마하는 안이요 싱면부지의 남조한아이  
방문을 열쳐붓들고 싹섯는디 얼골은 씨슨 비츠줄거리갓고 귀는 작달막하야  
아리위를 툭 짹은듯하며 무문관스 겹두루막이에 대문짜갓흔 고름을 쳐늘이  
고 게알갓흔 탕건에 죽저립을 폭속여쓰고 금테안경에 보석반지를 뭍시잇  
게 끼고 술이 얼근이 취하야 비틀하하 들어와 정숙을 쑥러지게 보다가 털  
석 쥬저안즈며 말을붓치니 정숙은 무인반야에 이런소조를 당하야 섬월을부  
르나 섬월이도업고 노파를 츠지나 노파도 업는지라 심중에 황급하야 옥갓

흔 얼골이 별안간에 청옥빛이 되어 안젓는디 그놈이 회설슈설 슈작을 늘어놓는다

(그놈) 나는 주인마누라가 잇는줄알고 들어왔더니 주인은 어디가고 절문아씨만 혼조잇소그려 압다 엇덜것잇소 지금보면 초면이나 다시보면 구면이지 본닉사귀인친구가 업습니다

그러나 아씨를 잠시보아도 필경학교에 단기는듯하니 엇던학교에 입학하엿소

좀체녀조갓흐면 무인반야에 성면남조를 디향엿스니 쓰노라고 불일을못볼터이나 담이말만하고 안초고다라진 정숙이는 쓸기는 고소하고 그놈을 증치할 생각이 속에 가득흔지라 셤뚫디답하는말이

네 나는 녀조 고등학교에 단기더니 오늘 졸업례식을 반송방 학교에서 하기로 지금가다가 아즉시간이 못되엿기 기들고 잇는중이오  
(그) 허허 그런말을 뉘게다하오

조정에 무슨 졸업례식을 혼단말이오

네가 누구라구 니압에서 그런 서투른 슈작을 붓치오

나는 다른사람이 아니라 이오기스는 리치슈요 어제밤꿈에 할박췌흔송이를 썩거보았더니 천만의외에 췌갓흔아씨를 구경하니 이역시 하느님이 지시하신연분인가보오 허허

그리올에 무슨성이나 되엿스며 아들이나 혼아 나하보왔소 허허

정숙이는 리치슈의 일장풍설을듯고 귀가막히여 아모말도 못하고 병々이 안젓다가 점잔케 거리척지하는말이

여보이냥반 잠간보와도 인스체면은 알듯흔디 무인반야에 녀조혼조잇는방에 돌입하여 비례지언을 막우하니 지금은 법률이 업는줄아오 진작다가야 망정이지 잘못하다가는 큰일을 당하리다  
어서 닝큼나가오

리치슈가 이말을듯더니 썰々웃스며

요 뻘々하고 요들々々흔 계집이야

그렇게 정결할것갓흐면 학교에는 안이가고 웨 장안데일썩장이 의주집에  
게는와셔 혼즈잇나

벌셔 그러면 알썩이지 요게 무슨잔말이야  
그리엇던놈호고 맛쥬엇디

나도 갓상쳐호고 방장혼쳐를 광구중이니 두말할것잇나 나와갓치살지  
리치슈가 혼춤 넋털우슴을호며 정숙이만보고 안젧는지라 정숙은 의주집슴즈  
에 그제야 부인과 섬월의 흥계에 싸진줄 세닷고 분한이 철골호야 구슬갓흔  
눈물이 도화량협에 굴너나리며 옥반에 준주굴니는 소리로

이놈 너도스름이지 스름이면 스름의 형실을 히야 스름이지 너갓흔놈은  
금슈만도 못흔놈이다

니가 불형이 악인의 흥계에 썩러져 이러흔 루쥬흔곳에는 들어와다만은  
아죽싸지도 우리동방에 레의가 잇는터인디 이놈 감히엇다가 그런 육설을  
호디

이놈썩나가거라 이놈 네가 안나가면 너흔놈은 니가죽이고 니가죽을터이다

리치슈는 정숙의 말을듯고 코우슴을 빙긋々웃고 점々 갓가히 들어안지며  
롱을건넌다

에구춤 무셔워라 아씨호령에 혼비백산이 되엿는걸

글세 나호고는 살기가 실탄말이야 웨나는 누구만못호가

허々々

정숙이 일썩척망흔것을 리치슈는 롱으로 풀쳐버리고 강포지육이 당두홀 모  
양이라 무슨싱각을 션듯호고

여보시오 니가신슈불길흔탓으로 덕에게 이런육을 먹으니 누구를 한가호  
겟소

그러나 나도 스부가녀자로 이런일은 듯도보도 못호엿다가 이런변을 당호  
니 덕이만일 일향 무레히굴면 나는죽을썩이니 그러면 덕은 무슨호겟소  
또 덕이 나를유의호것갓흐면 정대호게 구려도 될지말지호디 더구나 무  
레히구니 덕이 싱각을 즐못호엿소

리치슈가 이말을듯고 만심환희호야 입이 썩버러지며 정숙에게 감히 무레호

거동을 못하고

암이로할 말씀이오 네가 무례히 굴리가 잇겔소

못먹는 술잔을먹고 아씨께 회설슈설을 하였스나 지금은 술이씨여 생각하

니 그런가엾슬디가 업소 술취흔키라고 용서할실 밋게업소

나도 아씨가 누구신줄은 벌서알고 잇는터에 무례지스를 할리가잇나요

더군다나 아씨와 백년히로를 하였흔면서 그런행위를 할리가잇소

하면서혹시 정숙의 마음이 돌아안줄가 하야 멀찍이 물너안젧는디 이씨의

주집과 섬월이는 뒤스문밧게서 구경을하다가 나종은 정숙이가 휘여드는줄알

고 심분다행하야 쟁족흔 조동이를 휘말리고 살々우스며 들어와 정숙을 보

고 사과를한다

홀멈이 과연 의주집이올시다

조근아씨는 식탁에 가실가망이업고 청춘을 허송하시는것이 불쌍하여 어

옛분서방님흔아를 잊어드리조고 속엿습니다

요식야 엇덧습닛가 딕 정부인마남도 과부로 령감세 오섯지오

더구나 저 리쥬스나리는 풍신이던지 랑반이던지 형제던지 조근아씨딕만 못하지안습니다

또 리치슈를보며

여보 리쥬스나리 저련아씨를 잊어사시면 나리세도 영광이 안되겔소 혼인

흔후에는 상급을만히 주셔야합닌다

(리) 춤의쥬마々は 다심도하지

정숙이는 의주집의하는 말을듯고 당장의주집을 죽이고 심흐나 혈々단신의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와 탈신을 하조하나 스면 목을막아안젧스니 섯불니하

다가는 욕만더당할지라 리치슈와 의주집의 마음을 녹이고 도망할 계책을

생각하더니 싱긋우스며

나는평상에 무례하고 잡된스름은 도화안이하는걸

(의) 암 그럿치오

여보 리쥬스나리 말씀숨가하세오

정실로 백년을 검은머리가 파썩리가되도록 스실터인디 그리 잡성스럽게

구려쓰겟소

이씨 리치슈는 당장달녀드러 정숙을 겁간혹싱각은 굴욕갓흐나 그리면 정숙의 눈의빛게 날가하야 점잔치 못흔체겨에 점자느들을 셈는다

어침법도를 알으시는 말심이시로구

나는 남조라도 부잡흔스름은 대괴를 하는터인디 더구나 례문가에서 싱장하신 저런아씨야 오작하실리가 잇슬나구

뒤스문밖에 찰거말이 들어붓듯 목을 찢붓치고 엇보느년은 섬월이라 이거동을보고 문을썩썩치니 불여호가다된 의주집은 벌셔 알아치이고 문밖으로살멋이나잔다

(섬) 에그 아지머니도 츠싸하지 엇지하조고 그리 설음설음하게 일을쌈인단말이오

조근아씨가 정말숯중하는줄 아시오 우리마음을 녹이느라고 그리흐다오 그리다가 만일 다라만나면 죽을년은 우리들뿐이오

(의) 이이 별말 말아 니가 숨십여년 뚝장이 노릇헌년인디 그것을 몰으겟

니

십별지목이 업다고 조근아씨보다 더흔스름이면 마음이 솔깃하지안겟니

(섬) 에그 츠싸도하시오 조근아씨속을 니가알지

아지머니가 알겟소 엇덧케도량이 넓은줄아시오

(의) 이이 우슨말 그만두어라 나도 소시에 외입도 하야보고 겁욕도 당하야보앗다마는 처음은 의례히 싱과락갓치 잡아 세엿지 유공불급하야 예하홀가

(섬) 에그々々 답々히라 조근아씨도 우리갓흔줄 아시는구려 우리야말히무엇하오 열골이라도 번々이 싱기고 돈푼이라도 잇는듯하면 썰이를 툭々치고 빅단으로 아양을 다부려 산아희가 밋치게 구렷지오만은 그리도 그러치 안이하오

어서박비 귀정을 니게하시오

두년이흔츰 숙은々々하는디 정숙이눈의 들내고 점조는체하고 안젓든 리치슈는 섬월의 말을듯노라고 열이빠져 멀건이 안젓는지라 정숙이도 역시섬월

의 말을 대강 듣고 분한 혼외에 강포지욕은 면할 도리가 업음을 알고 수불이 별  
건 천동화로를 압에 끼고 안져 화제로 불을 이리저리 헛치고 안졌더니 의주집  
이 들어오며 무엇이냐고 군호를 맞추었는지 점잔 뜬 리치슈는 졸연이 역질  
변듯 땀 흘려 닦아안지며

어어 저아씨가 무엇에 성이 났나

왜 저리 식무룩하고 안졌서

(정) 여보 이것이 무슨 짓이오

(의) 하하하 너외 간에 아모리 하면 무슨 흥허물이 잇습닛가

(리) 허하하 암 이로 할 말인가

말을 섞고치고 달녀드는데 별안간에 스월팔일에 줄불듯 불빛이 번쩍나며  
방안에 모다 불타나리니 리주스는 별악치는데 하로강아지 나가 잤바지듯 전신  
이 불스덩이가 되어 제글글 굴며 죽겟다고 소리를 벽력갓치 지르니 정숙이다  
시 화로들 들어 리주스의 팔을 향하고 매여치니 리주스의 손목은 불에도 파  
히 데일련안이라 묵어운화로에 싸여서 금방 곰비팔이가 되어 잤바져서 불

성인사를 흥노되 의주집은 혼구석에 끼여서 발발 떨며 감히 다라날 생각도  
못하는지라 정숙이 화로를 번쩍들어 의주집을 치니 공교이 의주집의 코가 마져  
서 찢러지며 펄럭주저안지니

(정) 이년 죽이고 또 죽일년 언감심심이 스부가녀즈를 유인하야 더러운욕을  
죄이려하니 너갓흔년은 당장 죽여야 흥느니라

하면서 또흔번 치려할제 의주집이 거름아 날살녀라하고 방문밖으로 뛰어나  
가거늘 정숙이는 그름을 타서 도망하려고 쫓쳐 나가다가 문턱에 걸니여 업  
드러지니 도망하든 의주집과 섬월이 풍우갓치 달녀드러 아리로 좃추위싸지  
천둥동하니 썸작을 못하고 잡힌바 되여 괴식을 흥였더라

(섬) 에그 불행중 다행이지 이년이 제풀로 죽었소그려

앗가는 석우리가 죽을줄 알았더니 요년이 방문에 걸녀 업드러질줄 누가  
알았서

참 흥늘이지

그러나 아지머니는 코가 찢러져서 엇지 할잔말이오

에그 리주스는 괴식을 할야 인사를 못차리니 며련가이 업슬데가 어디잇슬  
가

(의) 이이나는 그리도 리주스보다 오히려났다

리주스는 더모양이 되얏스니 이노릇을 엇지하면 도흔가

(섬) 그러나 이웬수를 엇지면 다같은다말이나

(의) 하하 그리게 죽이지

의주집은 리츨판의 불면날가 쥐면새질가 하는 무남독녀를 죽이느라고 코써  
러져 압푼것도 몰오고 스면을 휘々둘너보다가 피딤(皮筵)을니여 장식을열고  
정숙을 들어너흐니 그피딤는 스름두엇도 녀々히 들어갈만하더라

(섬) 이왕죽였스니 발씨전에 어셔 슈시를 히여지

여보핑셔방 어셔드러오

문밖에서 눈살이 샘엇게 기두르든놈은 쯔근돌이라 부르는소리를듯고 흘거  
름에 썩여드러와셔 하는말이

허마나님 과히상치나 안이섯습닛가

(의) 과히상치안인게 무엇인가 에그 코가 썩러졌다네

(즈) 허가히업습니다

(섬) 여보 쓸디업는 잔소리말고 어셔갓다못고 오

쯔근돌이 정숙을 들너메고 우죽々나가더니 히가도든뒤에 입맛을 썩々다  
시며 왔는지라 장스지너러보니고 반흔기다리듯 의주집과 섬월이 대강이를  
마주디히고 안져셔 뒤설거지를 할다가 쯔근돌을보고 반식을할며

그리 뉘게들기지나안코 겁히무덜소

(즈) 응 무덜지

(섬) 그러면 어셔들여갑시다 마님이 기두루시겟소

(의) 이이 마님제가셔 니가코썩러진 말심이나하고 상급이나 만히줍시스고  
하여타

(섬) 아무렴 마님도 생각이 게시겟지

하며 의주집과 작별을하고 팔년풍진에 키가부르고 도라오듯 인왕산밋을바  
라고 불이나케 오논디 섬월을보니고 도흔소식듯기를 남산스골 성원님 역적바

라듯 원고기를 빗들고 안진스름은 리춤판의 후취부인서씨라 결과가 었지된  
줄물나 이를 박을박을 켜리고 안졌다가 섬일을보고 일변반식도하며 일변잡  
도나서 급흔소리로

그리서 엇더케 되었니

(섬) 에그 물으갓습니다

말씀하자면 이에서 신물이 절로나요

그 대답을듯더니 부인의 가슴이 덜컥나려안져 쓸적소리도 못하다가

이이 그러면 일이 잘못된게로구나

(섬) 에그 의주집은 코가 찌러져서 니마를 붓들고 코를풀게되고 리치슈는  
곰비팔이가되어 다라났는디 그동안 죽지나 안이하엿는지 물으갓습니다  
그런 령악하고 악독한 계집이는 처음보았세요

부인은 파르족족흔 얼굴이 더욱 식팔아케되야 발발들며 그러면 탈이났구나

(섬) 일이되기는 잘 되었습니다 마는

(부) 이년아 너잔장 다독이지말고 말이나 얼는솜히라

(섬) 어제 자근아씨를 췌여다리고 원네이모의 집으로가서 한참안졌다니  
리슈스가 오는고로 슬적 방을비워 주었지오

(부) 쌀쌀쌀

(섬) 그런 망홀녀석 보았슬싸 자근아씨가 처음은 준절이 척망도하더니 필  
경은 강포지육이 당두홀줄알고 리슈스의마음을 훨씬늑이는것을 원네야물  
으갓습닛가

의주집을 충동하야 자근아씨를 막다루라고 하엿더니 자근아씨가 솟불이  
니을니을흔 듯화로들들어 리슈스를넌다쳐서 리슈스는전신이불스덩이가되  
고또 팔씩지대여 옥으러져 곤비가되어 잣바지고 의주집은 밋쳐도망홀스  
이가업시 쪽어운화로에 마져서 코가 찌러졌다답니다

자근아씨가 그길로 췌손이를하다가 방문턱에 걸녀 엽드려진것을 묵거다  
가 유벽흔 송님속에못고 왓스나 의주집은 리히업시 남의 일을하다가 코  
찌러진병신이되엿스니 그런가이업슬데가 어디잇습닛가  
원네도 이번에 고성을 엇더케 하엿는지 물으갓습니다

부인은 정신없이 섬월의 조동이만 바라보다가 박복한 상파닥이에 빙글글  
우숨을먹음고 섬월의등을 디전별감 오고치듯 뚝뚝치며 총찬이 늘어졌다  
그러면 그러치네가 오작잘 하엿겟니

그러게 너를 보니엿지

인제야 무슨 걱정근심이 잇달말이나

이집안에는 너와나뿐일다

의쭈집은 무슨념치로 그져두겟니 돈빚이나 쭈어 병치료나 하게하여야지

(섬) 그러나 령감이 환헛하시면 무엇이라고 흠닛가

(부) 알々々 걱정은 무슨걱정

금년의 스름을디히지 설마하니 나더러 죽엿다고야 하시겟니

(섬) 히々々

노쭈량인이 붓터안져 공론을노라 헌석은 즈연져무려 오후다섯점이 되엿  
더라

뚜々々 소리가나며 화릉에서 식샘언 연괴가 풀석々々나더니 처형괴츠(西

行汽車)가 평양북도 신의주(新義州)정거장에 도착하야 썩서니 승객들이 남  
녀노쇼무론하고 썩여々々 닳토아가며 나리는디 그중에 룽심여세 가령은되  
여보이고 모발이 희들々々 세인 버리동지갓흔 령감훈아이 무엇을 두손으로  
쌍々들고 나오며 혼즈말로 쯤々거린다

어 시원하구 인제야 그놈이 썩쳐을나구

그런 시립에아달 엿지하즈고 이런중난흔짐을 길가에다 노아두고 그리멀

나가서 쌍을니질너 히々々

오늘 초속에서 마음이 엿뎛케 조마々々흔지 만일 잡히기만하면 팔모둥영

갓에 오동시계줄이야 면할슈잇나

일변으로 쯤열々々하며 그것을질머지고 밤이식도록 열마를갓든지 숨스가구

스논초략으로 들어가더니 그동리북판에 크도적도안이흔 초가집 대문을덜

씩어리며 문을열나 소리를지르니 그초가집 안에서는 밤낫업시 령감오기만

기다리든 로파가 쯤이업시 혼즈안져서 담뱃만 뚝々먹으며 한숨을 치쉬고

나리쉬더니 밧게셔 부루는 소리를듯고 반식하야 뛰어나가 문을열며

아 금순아버지오 무엇하고 인제야왔소

그리 금순이나 초젼소

(령) 금순을 어디가쳐 공연이 이만무진냈는걸

(로) 파) 에그 불상히라 우리금순이는 필경죽은게지

(영) 허々츄 회지수가 닥치닛가 별々일이 다만드군

로파는 무슨제물이나 엇어오는줄 알고 엉덩이바람이 절로나서 령감을 싸  
라 드려오며

여보 회지라니 그것은 무엇이오

궁금하니 말이나 좀구려

(령) 압다 드러가서보면 알것을 잔말은하여 무엇하나

쏜살로 안마루압에가서 질머지고 온짐을 쿵노흐며

에구엇기야 저것을 정거장에서 지고 오느라고 엇기가 엇덜게압퐁지

(로) 츄 짐판은 이상구려

무슨장식새지 잇네그려

(령) 누가 안이라나

그속에 여간것이 든줄아는 게로군

돈이들어도 여러만량이 드렸고 무슨물건이 드렸셔도 여러천량아치가 드  
렸슬걸

(로) 그러면 좀열어봅시다

(령) 그리지나도 웬종일 지고는 왔스나 무엇이 드렸는줄은 몰으는걸

일변 짐도져야오든 리약이도호며 일변 그짐을 썰어다 압에놋고 장식을  
열나하나 이리열고 저리밀어도 열너지 안는지라 골짜지가 벌어나든지(이런

오라질놈의것이 무엇이길네 열너지안나)하면서 칼로장식을 두달여 어괴이  
고 급히들이밀어 보다가 별안간에 두눈을 흘뜨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나  
가жат바지니 로파도 역시 가슴에서 맛방망이질을호며

금순아바지 저것이 웬일이오

거괴 무엇이 들었게 저딴지 놀나시오

하면서들이밀어보고 역시 쌔쌔놀나 물으청호였다가 다시드려다보더니 두

눈에 눈물이 썩々 떨어지며

에그 씹쪽도 허라 었던 몸실년놈이 저러케 잘싱긴 식사를 저리몹시 죽였셔  
밤이 낮갓튼 세상에 저런일도 있나

저식시집에서는 저런줄몰오고 오작흘나구

에그 우리금순이도 저지경이나 안이 되었나

제설름이 북받쳐 흘려々々 울다가 반식을 할며

에그 저신체가 씹질억어리니 아조죽은것은 안일제

할면서 급히 그신체를 쓰집어너여 무셔운지도 몰으고 묵근것을 풀어바란후  
가슴에 손을 너허보더니 여득만큼만녀여 안아다 방아르목에 누이고 슈죽도  
좁으르며 물도알여 입에도 흘려너흐니 스지에 점々 온기가 도는지라 이씨  
령감장이는 종일츠를타고 오느라고 츠멀미도나고 묵어운짐을지고 밤식도록  
형역을 할야 괴운도 식진흔삿에 큰지물인가 밋고밋든짐을 열어보니 돈이나  
지물은 안이요 십오륙세쯤된 녀학도의 시신이라 낙심천만 흘썩더러 었던케  
놀났던지 괴식을 할야 잣바졌다가 겨오정신을 진정 할야 노파의 하는 거동을

보고 소리를 벌여질으며

여보마누라 그용장은 왜그리가지고 좁을너

(로) 에그 아조죽지는 안이헛소그려

좁 들어와 보오

소리질으든 령감이 이말을듯고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보다가

에 불상도공군 뉘집구슈인줄은 몰으나 잘도싱기엿는걸

(로파) 에그 우리금순이와 흡스 할오그려

또 년괴도상반 할지

령감은 들은동 만동하고 허둥지둥 나가더니 무슨약흔첩을 지어가지고와셔  
급히달여 로파를쥘며 썩먹이라 할고 엽혜안져 슈음을 할더니 동이틀썩는  
되야 그구슈가 츠츠 화기가돌며 숨소리가 들니고 눈을잠깐썩셔 보다가 돌  
오 감으니 로파는 이모양을보고 신괴함을 이기지못 할야

에그에그 신통허라 인제는 꽤히돌넛셔

할며 미음도먹이고 약물도 흘려넛더니 날이 꽤히밝으미 그식시가 눈을썩보

다가 눈물이 글영글영하야 훌훌웃거가며 울거늘

(로) 여보々々 정신출혀 나 좀보오

그석시는 정신이 혼미하야 눈에 보이는것도 업고 귀에 들리는것도 업더니 로 파부르는 소리에 놀나 식정신이 잠깐돌릭 스면을 들너보니 어디인지 향방도 알슈업고 평정보도 못하든 늙은령감 량주가안져 조귀를 구호하든 모양이라 정신을호츰 진정하야

에그 여괴가 어딘가

로파는 이소리를듯고 심분다형하야

에그 다형하지 인제는 정신사지 출히는 모양일세

여괴는 평안도의쥬셔촌 황동지집이라오

그러나 웬사닭으로 이디경이 되었소

그석시는 의쥬란말을듯고 모골이송연하나 로파량주의 하든모양을 보아도 악인은 안이라

여보시오 니가 엇지하야 여괴를왔소

(로) 말하조면 싯듯도하지 우리령감이 셔울갓다가 내려오는길에 엇던놈이 지코가든짐을 길섭에 버셔노코 어디를 간름에 질머지코와셔 본즉 에그섬 쪽도흙디다  
아가씨를 쌀니줄로 천々묵거 죽엿습디다그러  
속이갑々하니 말이나 좀하오그러  
(그석시) 에그 죽은스름을 살너주니 이은혜를 무엇으로갑나  
로인량주는 우리은인이니 무슨말을 못하겟소  
나는 경성인왕산밋 리츨판의 쌀이러니 괴이흔 가변을맛나 이디경이되었소

(령감) 어그러면 그러치 잠잔보아도 량반의 조근아씨야

(로파) 그러면 셔울 저상가딕 조근아씨로구면

우리늙은 두량쥬별이요 아모도업스니 마음듯고 조섭이나 즐하시오

(정숙) 에그 죽은사름 살닌것도 은혜가 티산갓흔디 불안하야 엇지면 도흔가요

(로) 천만의 말심이지 아모념려말으시고 계시면 저의 두하으니 힘자라는  
 터로 아씨공폐를 호오리다

자연여러날이되니 정숙의 괴거동작도 여상하고 로파와 정분도점々듯터워지  
 니 서로 지난일을 말하다가 로파가 홀연 눈물을 주줄이흘니며

에그 저근아씨는 그런변도 당하고 살아나섯소만은 우리금술이는 죽었나  
 솔었나 저근아씨를 볼적마다 금술의 생각이나서 못살겟소그러

후우 우리량주가 오십여세에 쌀저식을홀아 두엇슬망정 제위인도 비범히  
 지오

지금잇스면 열일곱살이올시다만

(정) 그러면 금술이도 나와갓치 무슨변난을 당히나보구려

(노) 에그 도모지 우리두하은이의 전성죄가 만아서 그양화가 저식에게로  
 나렸세요

작년겨울에 디적씨가 들어와서 금술을 잡아갔는디 그후에 아모리 탐지하  
 나 종적을 알아야 찾지오

에그 싱리별은 싱초목에 불이붓는다고 숯제 병이나들어 죽었스면 오히려  
 좀낫겟습니다

이번 우리령감이 서울간것도 금술이 초지러 간길입된다

말을맞치고 비죽々々 우는지라 정숙이도 심회가 산란하야 눈물이 뚝々떨러  
 지며

나도 우리어머니만 계셨드면 무슨걱정이 잇섯겟소

금술어머니가 금술의 생각하는것만 보아도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나서  
 못살겟소그러

우리아버지는 제주계서서 너가 이러케된줄은 몰으시고 우리집에서는 너  
 생각을 누가하겟소

(로) 저근아씨야 잠시 액운을 썩이시느라고 그런변을 당하섯스나 령감만  
 돌아오시면 무슨걱정이 잇겟소

덕령감 오실썩썩하야 올라가시면 그전지니신일은 잠시 뉘썩신심이지오  
 이썩 황동지는 금술을 초지러 나가고 정숙이는 미일 바느질과 길삼으로 소

견도하며 잔잔히 학문도 연구하니 자연 이런소문이 전파되니 먼디갓가온디  
무론하고 늙은계집 절문계집 판슈산에 구름씨듯 용문산에 안기돌듯 사역々  
々 모혀들어 서울물정도 키여무르며 시골리약이도 차례로하니 좀시고적흙  
은 업스나 자연 룡철삭이되니 여름이진하고 겨울이되여 오는지라 고촌단락  
에 물씩은 처량하고 압산뒤들에 낙엽은 소々흔디 천리타향에 외로운 심스  
는 홀으느니 눈물이오 동창에 돛는달과 서산에 지는히는 모다정숙의 서름  
이라 로파는 만단으로 위로하고 지성으로 디접하야 천살보다더하니 정숙이  
도로파알기를 즈모와 갓치하더라 하로는 정숙이 로파를보고 하는말이  
여보 우리아버지가 그동안 사년이라 거기서 오셨는지 물어거니와 나는  
좀을나가셔 보아야 하겟소  
우리아버지도 나흔아두신터에 집에와보시면 오작하시겟소  
로파는 정숙의 말을듯더니 혼숨을 휘우쉬며  
암 그랬치 안이시겟소  
나도 금슬을 일코 주야 상성하는디 덕령감이신들 오작하실나구요

을나가신 다는것을 만류할슈 업스나 우리 령감도업고 즈근아씨와 의지하  
야 지니다가 즈근아씨마져 을나가시면 엇지견디나  
덕령감마님은 그동안 오셨는지도 물으고 만일 섯불나 을나가시면 그년  
들이 무스히두겟소  
여기 계시다가 우리 령감이나 오거든 서울보니여 조세히알고 을나가시지  
눈물이 더벅々々 오륙월 장마갓치 쏘다지니 정숙이는 그경상을보고 감창도  
하며 일변 생각하야도로파의말이 올흔지라 로파를 위로하더라  
여보 을지마시오 나만하야도 마누라 은혜가 티산갓흔디 령감도 오기전에  
츠마세치고 가겟소  
령감이나 오거든 서울구경겸하야 나와갓치 을나가십다  
(로)에그 그러면 즈근아씨덕에 서울구경을 하겟지  
즈근아씨안이면 하향하으니가 서울구경을 히 볼슈잇겟소 하々々  
이모양으로 슈작하노라고 히가々는줄 몰으더니 문밖에서 문여러달나고누  
가 부르는지라

(로) 누구나 숨특이나 네가 웨왔니

(숨특) 우리아지머니가 금순어머니 좀오시라구요

(로) 너의 아지머니라니 엇던 아지머니 말이나

(숨) 압다 서울아지머니요

(로) 오자 서울아지머니가 내려왔셔

너는먼저가거라 나는 저녁밥 할야먹고 가마

정숙이는 서울소리를 반겨들엇든지 로파를 향할야

여보 서울스름이 엇지할야 여귀를왔소

아마 남의 별실로 갖든스름인가보구려

(로) 그년이 남의 첩노릇이나 할엇스면 제법이게

(정) 여보 엇전말이오 첩노릇도 못할스름이 어디 잇단말이오

(로) 하하하 우두라찰갓흔 지디박석도 남의 첩노릇을할가

(정) 그러면 그스름이 박석이오

(로) 하하하

그년은 저건너 덩초시의 누의년인디 열골은 인두검을 씻스나 형실은 키  
만도 못흔년이라오

그년이 쇼시스적에 이근처의 불알달닌놈은 생그리 주어먹엇다오

그리도 유의부족할야 서울로 서방질할러갓더니 엇지할야 내려왔나 오라

는디 안이갈슈논업고 좀가셔 썰아지나 보아야

중얼々々 쉬지즈며 저녁을 칠은뒤에 가더니 밤이 이슬흔후에와셔 정숙을보  
고

곳온다는것이 조연지체가되여 즈근아씨가 좀 고적할섯슬나구

그년이 엔잔이 붓드려야지오

그러나 그년이 서방질을 넘오할더니 괴여히 코가 떠러졌데그려

에에 더러운년도 참만드군

산아희들은 아마 눈도업는게야 그런년을 계집이라고

(정) 그스름이 서울어디똥니에 산답씨가

(로) 그년이요 그년은 서울서문밖 산답씨가

이씨정숙은 의심이 뭉뚱하야 조세히 무른죽 위불업는 의주집이라 정신이  
앗질하야 아모말도 하지못하고 안젓다가

여보 이것을 잊지하면 쫓켓소 웨슈가 외나무다리에서 맛났소그려  
그녀는 의심업는 의주집이요그려

로과는 혀를해々 니들으며

니가 그런줄이야 잊지알았나 의주집이라기 잊던년인가 하엿지

오 그리서 그녀가 조근아씨리력을 미주알고주알키여 못든게로구면  
나는 발은고장으로 말을하엿지

그년의 오라비 덩초시도 흉악한놈인디 당장 큰탈이 낫소그려

오늘밤니로 무슨변이 업슬줄아시오

두말하고 피신했도리를 하여봅시다

(정) 그러면 어디로 피신을하야 쫓켓소

오늘이나 지니고 리일은 정거장으로 나가서 피초를타고 서울로 올라가지

(로) 에그 싹흔말슴도 하시는구려

여기서 정거장이 팔십리나 되는데 조근아씨가 무스히 나가시면 쫓켓소만  
은 그녀가 엿더케 음흉한 년이라고 조근아씨가 정거장으로 나가실줄 몰  
으겟소

(정) 그러면 잊지하나

(로) 그야 걱정할것잇소 예셔 오리썸되는 동녀마을이잇는디 그 마을에스  
는 최과부는 나와 형제갓치 지닐뿐더러 형신도 썩무던하니 그리로 좀산  
가십시다

그러나 저티로 가시면 당장육불 넘려가 잇스니 변복을하고 가십시다  
우리 스위보면 주려고 의복흔벌 지어둔것이 잇스니 그것을 입으시고 갑  
시다

말을들곳치고 급히 장농을 열더니 관망이며 의복을 주섬주섬 니여놓는지라  
정숙이 황망히 치마를벗고 두루막이를 입으며 머리를 올니고 망건을쓰니  
요조무미흔 절망가인이 변하야 현앙의결혼 미남자가 되엿더라  
로과가보고 살살우스며

에그 숨신도 야속한지 즈근아씨가 남자로 되어나셨드면 저런일이 잇슬까  
들이잇나

남복을 향시닛가 더어엿부구려

하고 정숙을 다리고 문에나서 혼침가다 가로파가 거름을 주춤하고 정숙이  
를 썩질으며

여보즈근아씨 저가가는 스름들이 대단이 슈상하구려

정숙이 머리털이 썩벗하여 돌아보니 어둑침침한데 슈건으로 머리를 질근동  
힌놈들이 충々 달녀가며 저의들끼리 궁리를 하더라

여보게들 아죽은 녀오일이니 잠이나들거든 동혀오지

또한놈이 썩나서며

춤 즈네말이 올흔말일세

(또한놈) 땡 화냥년의종조

지금 야동스집은 두 발을 동그굴으며 이를쓰는듯 녀오일은게 다무엇이야  
그놈들의 공론이 이모양으로 부산흔지라 로파는 두달이가 별々설녀 정숙의

쇼목을 단々히붓들고 줄다름을주니 정숙은 학교에서 체조를 비왔는고로 오  
리는말고 오십리라도 녀녀나 로파는 얼마가도 못하야 숨이턱에다서 썩은  
썩은하며 길사에 펄럭져안즈면 정숙이가 로파를 부촉하여가며 가더니 로  
파가 그제야 숨을길게 뉘쉬며 엇더흔 조고마흔 집으로 들어갓다가 다시나  
와 정숙을 다리고 들어가니 집은 괴씩지만흔듯 오십안밖은되여 뵈이는 마  
누라가 흑각빈혀에 소복을입고 방에서 마조나오며 춤 가엿기도히라 서울저  
상가 귀흔 사남으로 저런변이 어디또 잇슬가

방은 누추하나마 이리들어 오시기오

(정) 누구신줄은 드렸스나 밤중에 소요를 썩치이니 대단불안 합니다그려

(유인) 천만의외 말심을 다하시지

(로) 잔말말고 어서들어가시오 이집유인은 니나달을것 업습니다

나는밤비가서 보아야 하겟소

하면서 뒤도 안이돌라보고 가는지라 정숙이는 단독일신이 깨발물어 던진듯  
키 최과부집 안스방에 안져서 심스가 황홀하더니

(유인) 참 어엿부셔라 올에 년세는 얼마나 되셨나요  
황동지 마누라게 아가씨 성화는 님숙히 들었더니 지금뵈온즉 듯든말보다  
빅빅나 더하신걸

(정) 니나회는 인제야 심륙세가 되었소

(유) 아가씨 당하신변은 남이드러도 몸소름이 셋치지

그런흉악한년이 어디잇서

당초시 누의년은 본리 그런년이라오 에그 그년을 언제나 죽이나

나도 과부된후에 슈절이니 괴절이니 혼다고 비양거리며 무슨심술로 잡놈  
들을 부축여서 나를동허가라고 혼년이라오

(정) 에그 나당흔일이야 남의탓하여 쓸디잇소 도모지 니신슈 불길한탓이  
지오

그러나 마누라님은 즈녀간에 얼마나 두었소

(유) 이고 이십이 못되여 과부된년이 즈식이나 나아보았겔소

(정)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스시오

(유) 우리 천정오라버니가 이동리에 사는고로 의지하고 살지오

우리 오라버니가 모도 돌인디 혼아는 역마을이라 하는동리서 살지오

말을 맛지못하야 황동지 마누라가 숨이 턱에닿게 혈네벌떡이며 뛰어들어와  
말은못하고 손짓만하다가 혼침만에 하는말이라

니가 집으로갓더니 그놈들이 이리로 오며하는말이 즈근아씨는 분명이 최  
과부집으로 피하엿다하고 방장 슈탐하러올터이니 두말말고 저건너 솔밭  
속에 숨엇다가 그놈들이 단거가거든 돌오오시오

그놈들은 말못할 불안당 놈들이니 졸못하다가는 큰욕을 당하시리다

즈근아씨가 남복을 하섯스나 얼골이 넘오고흐니 그놈들에게 들리기만하  
면 큰불변을 하실터이오

최과부는 리히업시 스시나무 썰듯하고 안스방구석에 끼여안졌는디 정숙이는  
황々급々히 뒤스문으로 도망을 하엿는디 강도갓흔 놈들이 달녀들러 불문곡  
직하고 최과부집을 슈척하다가 황동지 마누라를보고 여괴잇다 소리치니 황  
동지마누라는 그놈들에게 쓰을녀나가며 앙살을흔다

에그머니 늙은 스름을 웨들 이리호오  
네가 당신들과 무슨 웨슈가잇소

(그놈들) 웨슈 웨슈가 다무엇이야 이러면 누가 속을줄 아는게로군

(로) 에그 속이기는 무엇을 속인단말이요

죽이려거든 그져죽이지

(그) 이런 줄이셔를 안길년 보앗슬까

이년아 네집에잇는 계집아히를 엇다 숨겼서

잘못하다가는 큰일이 날야구

(로) 에그 고약히라 계집아히가 무슨 계집아히야

나는 이집으로 마을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인디

그놈들이 최파부집 전후좌우를 뒤여보아도 정숙이는 잔데업고 황동지마누  
라만 발명을 부엌케 하는지라 혼놈이 달녀들어 북두갈구리갓흔 손바닥을벌  
여 로파의셈을 나라가게 썰썩붓치며 발오도설하라고 하는지라 로파는 아조  
쳐죽이라고 디들어 발악만하니 혼놈이 어디를 혼춤보다가 손뼉을치며

여보게 그계집아히가 건너 솔밭속으로 가네그러 지세히들 보게

여러놈이 이윽히 보다가

이이올타 참 그런것이다 지금시벽에 누가 솔밭속으로 갈리가잇나

말을썩긋치고 여러놈이 일제히 솔밭으로 가는지라 황동지마누라는 항여정  
숙이가 물을싸하야 악쓰는 소리에 정숙이는 솔밭속에도 은신을못하고 큰길  
만바라고 다라나더니 뒤에 불빛히 조요하며 그놈들이 쫓쳐오는 모양이라  
쌀은 거름으로 무작정가다가 발도 불웃고 다리도 압파 길섭에가 주저안지  
니 히는 올라와서 시간으로 말하듯면 오전섭시가량은 되엿는지라 황동지  
마누라의 은혜도 감격하고 또 지리의 신세도 한탄하며 눈물이 비웃듯하더  
니 아참안기가 갓치고 학교에서 상학하는 종소리가 들리니 멀니바라보니  
산밧으로 큰 동리가 즐비하고 스름들이 왔다갔다 하는지라 압푼다리를 썩  
을고 그동리를 쳐져들어가며보니 숨빅여호 디촌이 즐비하고 중앙에 학교흔  
아히잇서 방장 상학하는중이라 그동리에 스랑잇는집을쳐져 들어가 주인을  
쳐저니 주인은 학교에서 안이왔다 하거늘 스랑마루에 걸어안져 다리를 쉬

논디 그집주인이 손님왔단 말을듯고 오다가 정숙을보고 주저々々하며

(주인) 어느곳에서 오신손님이시오

정숙이는 주인인줄 짐작하고 몸을일어 디답을흔다

네 지나다가 다리좀쉬여 가즈고 들어왔소

(주인) 그량반 음성을 드르즉 우리 시골친구는 안이시로구 어디스시오

(정) 네 나는 경기도 량주에 사는스름이오

(주) 그러하셔요

인스흡시다

넋덕이라 혼딿소

(정) 나는 리정숙이라하는 스름이오

(주) 네 나는 최동락이라 쓴딿지오

그러나 로형은 무슨일로 이곳에 내려게신가요

(정) 강산유람으로 나섰다가 저연 여괴까지 전진이 되엿소

(주) 참장하신일이로구 나는 오십이 넘엇스나 강산유람을 못하엿는디로

형은 년쇼하신티에 유람을 단기신다니

(정) .....

(주) 좀시외와도 지화가 표일하여 보이시니 어느약교에 슈업이나 하섯딿소

(정) 지화라할것이 무엇잇나요

작년에 스범학교에서 졸업까지 하엿스나 학문이 유치하니 오히려 붓그럽소

주인은 이말을듯고 무슨 생각을 잠간하다가 무릎을 탁치며

참 조달이시로구 어느름에 학교에서 졸업까지 하섯단말씀이오

강산구경을 하섯다니 좀 드러봅시다그러

정숙이가 묘션 십삼도 산천의 경기와 리슈의 원근을 그린듯이 말하니 이는 정숙이 참 구경흔게 안이오 디리학을 연구흔고로 서슴지안코 말함이라 주인은 일장 슈작을듯고 입에침이엽시 충찬하며 점심도 정성으로 디접하교 얼마간 유련하기를 간절이 만류하더라

(주)로형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셨다기 말이지 여기도 학교 명석은 흔아  
잇스나 교수가 부족하고로 학생의 교육정도가 말이 못되니 로형같은 량반  
이 계시면 무슨걱정이 잇겟소

(정) 니야 무슨 걱정이 잇겟소만은 학도는 얼마나 되오

(주) 학도는 오류십명 가량이나 되지오

(정) 과정은 몇과정이나 되오

(주) 과정은 디지력스 물리 화학 산술 작문 체조 일곱과정이나 교수가

변변치 못하니 쓸데잇소

(정) 대단히 확당이되는 학교오그러

(주) 여보시오 니가 할말씀이 잇스니 드르신다면 말씀하겠고 안드르신다  
면 숫제안이하겠소

(정) 무슨 말씀인지는 몰으나 잠시라도 주위의가 잇는바에 들을만하면  
듯다뿐이오

(주) 달은말씀이 아니라 본인이 저학교 교장으로 잇는디 교수를 고빙하여

오르거나 경성서 여과를 올스름도업서 학교는 자연 폐지될지경이니 탄석  
한일이오

로형이 사범학교에서 졸업을 하셨다니 아주 몇달간 우리학교를 찬성하는  
심으로 같으쳐 주셨스면 만행이겟소

정숙이는 서울로 가자나 로비도업고 저기부친이 돌아와있는지도몰나 진퇴  
가 어렵든초에 이말을듯고 속으로 심분다행이 녀이나 외면으로 스양하기를  
허 요흔말씀이을시다

지금이사타를 당하야 우리동포를 교육코자 업는학교를 설립이라도 할터  
인데 잇는학교가 폐지되는것이야 참아보겟소 그러나 니가 지식도업고 학  
문도 유치하니 주인의 부탁을 감당치 못할싸하오  
아는것만 잇고보면 두말을 하겟소

주인은 정숙의 언론을듯고

그것은 겸사의 말씀이오만은 아모리 어려우시나 니일브터 출석하심시다  
정숙이 부득이 허락하니 주인이대회하야 정숙을 다리고 학교로가서 일반학

도를 불너세우고 이뜻으로 공포를 하더라

이량반은 경성스범학교 졸업생 리정숙씨이신데 맞춤 여귀를오셨다가 우  
리서흥학교를 사랑하시니 얼마간의 무력으로 교수를 하실터이니 여러학생  
은 감수한뜻을표하라

하니말이 뜻긋치며 학도들이 일제히 감수한뜻을 표하는지라 정숙이도 잠간  
답례하고 권면력으로 연설을 하노니 그 도々한 웅변을 모다 박수갈채하고  
최주스는 엇기바람이 절로나서 잔악한 답사로

여러학생들은 리정숙씨의 금옥같은 말씀을 폐부에 삭여서 용감력을 분발  
하야 아모조록 도헌뜻을 보답하시오

이날부터 최주스는 정결한 처소를 정하야 정숙을 거처하게하고 관곡히 디  
접하니 정숙이도 주인외 후의를 감수히알더라

이른날정숙이 서흥학교에 출석하야 여러반 학도를 교수할제 력스시간에 동  
서양력스를 자세히 설명하야 물리, 화학, 산술, 디지, 레조도알아듯기 편리도  
록 간단히 교수하니 학도의 진보됨은 물론하고 정숙의 명예가 점々진동하

야 서흥학교로 첩보시키고오는 스름이 길에메여 학교의 흥왕됨이 평안북도예  
데일이러라

하로는 정숙이 근처산천을 유람하고 돌아오는길에 동녀말스는 최과부를 만  
나니 피초반석하야

(최과부) 아 저근아씨 이것이 얼마만이오

그씩 그것게 가신후에 성스존망을물나 궁금하더니 엇지하야 여귀계시오  
그놈들에게 잡히지 안이신것은 알았지만은 엇지하야 그져여귀계시든가요  
이제정숙이는 최과부를보니 반갑기도 홀썬더러 황동지마누라를 생각하고  
눈물이 그렁々々하며 저초지종을 대강말하고 황동지량주의 안부를 무르니

(최) 에그 그동안 황동지집은 아조결판이 낫다오

그런디 엇더케 되여서 우리오라버니 집에와 계셨소 최주스가 별스름이  
안이라 우리오라버니오 아모려나 다형한일이오

그놈들이 아모리 흉악한 놈이기로 감히여귀싸지야 쫓쳐올슈잇소

황동지집 결판났다는말에 정숙이 삼썩놀나며 그연고를무르니

(최) 저근아씨가 도망하신티에 그놈들이 황동지 마누라를 잡아가고 그집에는 충화씨지 하엿는디 그후에 드르즉 황동지 마누라는 도망하야 서울로 갓단말이 잇습디다

또 덩초시놈은 지은죄가 잇는고로 동리사람들도 몰으게 철가두주를 하엿지오

정숙이 이말을듯고 울며하는말이

에그 황동지방주는 공연이 너석됨으로 못살디경이 되엿소그려 저를 엿지하면 도흔가

에그 그은혜를 갑지면 살을 삭근들 엿지다갑혀

에그 너신슈 불길흔 탕으로 남의 못홀노릇까지 식엿지

(최) 압다 지금 그런말씀하야 쓸디잇소

저근아씨가 서울로 올라가시면 황동지방주야 석마 그저두시겟소

(정) 나종일은 엿썩던지 지금다장 그런 불상하고 불안홀데가 또 어디잇소

저연이말저말하며 최쥬스집에 당두하야 정숙은 거처하는 처소로가고 최과

과부안으로 들어가더니 최쥬스가 정숙의리력을 드렸는지 무릅을치며

허늬가 눈이잇셔도 망울이 업는사람이로구

이썩새지 남자로만 속앗지

그 학문이든지례절은 남자로도 그 만분의일만 되여도 못홀스업이 업슬

결

엇전지 학교에가든지 연설장에 가드리도 번々이 외싸로 안지며 등인과 혼잡지안이하기예 웬일이줄은 몰으고 넘오피망하고 쌀々하다고 하엿지

우리갓흔 스름이야 슈에 칠것도잇나 술좁어니요 밥좁어니지허

말을 똑긋치고 정숙의 처소로나와 사과를 하논디

제가 미옥하야 귀부인을 몰나보고 잔혹 실례된일이 만앗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은 최쥬스의 말을알어듯고

에그 천만의 말씀을 하십니다그려

최쥬스가 실례하신티도 업거니와 이스름이 지금새지 속인일이 실례라하

갯지오

나도 처음으로 여기를와서 이근처 풍속을 물으는고로 녀즈인체를 안이하  
엿소

최쥬스는 이런말을 드를수록 더욱공경하고 정숙의본적이 자연전파되니 남  
녀무론하고 모다 정숙으로 표준을슴더라

정숙이 서흥학교에 잇는지 자연 여러달이되미 그근처 풍속을 대강시찰하고  
심중에 판단하야 녀즈회를 조직할생각이잇서 최쥬스와 의논하고 의주경  
년에 유지신스를 청하야 녀즈교육할 방침을 간절이 설명하니 의주일경 스  
름들이 정숙의명예를 아는고로 서로권면하야 녀즈학회를 조직하며 동리마  
다 녀학교를 설립하야 녀즈를 교육하니 몇달이 못되여 요스흔 풍속과 음일  
흔 괴습이 돌변하야 세계대일등야만으로 지목받든 의쥬방면이 문명호도  
흔 인종이된지라 리정숙의 명예가 점々 높하서 그 금옥같은 권면을 드르려  
고 스방에서 청치안일 날이엿더라 그러나 정숙이 서흥학교에 온지가 자연  
여름이 진하고 겨울이되여 그러저령 일년이 넘으니 짐 생각하느는 눈물은 하

로도 마를씩가 엽는지라 그동안이라도 서울로 올라가랴면 못할것은 안이나  
리춤관이 세주셔 환가하엿는지도 몰으고 올라가면 또 화변을 당할념려도잇  
고 일변으로는 의주경년에 남녀스회에서 간절이 만류하는 후의도 팔시못하  
여 리일 교혹스무에 귀회를 위로하고 지너더니 하로는 최쥬스를 덕하야 작  
별하는말이

여보시오 본인은 일기년쇼 녀즈로 화란을맛나 여기를 왔다가 여러 동포  
즈미의 성덕흔 환영을받고 그후의를 난팔하며 서흥학교의 정도를 탄석하야  
지우금지체가 되엿스나 다행이여러분 열성으로 의주일경의 교혹정도는  
리정숙이 안이라도 녀즈히 확장될 희망담이 잇스니 본인은 작별을 고후고  
돌아가야하겟소

(최) 참 섭々흔 일이올시다

우리의 주동포가 리정숙씨의 교혹을 충분히밧어서 야만인종됨을 면하니  
리정숙씨는 우리의 은인이라

스리로 말하여도 못가시게 할슈는업스나 이뜻을 여러 학교에 공포하즈면

자연스오일이 될터이니 그럭저럭지만 참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숙이 최쥬스의 후의를 막지 못하야 자연스오일이 지나니 원근 학교와 녀즈  
사회에서 서흥학교로 모혀들어 리정숙 송별회를 개최하고 다체마다 티표즈  
로 혼스름식나와 송별하는 뜻을 표하니 리정숙도 창결혼뜻으로 답사를 하는  
디

금일 여러 동포즈미써서 이만 녀즈를 위하야 이처럼 광림하섯스니 일변감  
스하고 일변불안하외다

본인이 여괴온지 일년이 되었는디 여러분의 이호하심을 입어 문명계에서  
활동하니 평성소원이 족하다가 스실상 부득이하야 여러신스와 여러즈미  
의 후의를 꺾시하고 금일 작별을 고후오니 창결하기 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모조록 교육계에 신공의를 만히 흡수하야 건강이 지  
니심을 축슈하오

임별에 할말씀이 무궁하나 이만합니다

말을 마치니 남녀학도와 교육계 신스들이 모다 리정숙씨 만세를 부르더라

### 리정숙씨 만세

### 리정숙도

### 의주교육만세

### 서흥학교만세

폐회후 정숙이 최쥬스와 은근이 작별하고 정거장으로 나와 기차를 타고 오  
며 생각하니 그전일이 소소하야 감동할바도 만코 황동지 량쥬의 은혜도 빅  
골난망이라 황동지 량쥬의 은혜를 만분지일이나 갹지흔들 그 거처를 몰으  
니 그도 홀일업고 오죽 눈물만 썩리며 오더니 경의선(京義線)정거장 부근학  
교마다 리정숙을 환영하느라고 분담하리라 정숙은 간절히 후의를 답사하고  
기차가 신안주 정거장에 도착되니 그지방 녀즈사회에서 지성으로 만류하느  
바 1되야 신안주 경의에 유명하녀 학교에 가서 권면으로 연설을 하느디  
본인은 년천하녀즈로 학식도업시 여러분써 디하여 말씀하느것이 실례오

나 잠간 설명할 말씀이 잇스니 드러주시기를 바라오

지금 이십세기(二十世紀)신풍조(新風潮)를 당하야 우리녀즈된 동포는 절디

덕(絶大的)관념(觀念)이 없으면 도저히 안이될줄 생각함오

그절대덕관념이 무엇이냐하면 대강 말하건대 티셔각국(泰西各國)녀자의 인격(人格)과 우리 녀자 사회의 인격을 비교할즉 소양이 현수한다 하겠소 티셔의 녀자들은 농상공업(農商工業)과 기타 제반사업의 발명연구함을 남자에 양두치안코 성명자산(生命財産)을 남자에게 의뢰치 안이하는고로 국민의 당연한 직책을 손실치 안이하고 직책을 성취함미 가정교육이 필요결과로 타일에 무수한 인재를 양성함야 문명을 개발함니 금일 래서 각국의 문명발달됨이 모다 녀자학문의 발달된 효험이라함오

우리 녀자계를 돌니 살펴보면 스천년 규문등에 종신금고를 당함야 수습하고 어리석으며 암미하고 유약함으로 유한정당(幽閑貞靜)목덕을습고 만일 학문상에 유지함거나 별로히 특이한 소양이 잇스면 일가죽당이 부인의 도리를 위비(違背)함다고 비방함며 심지어 녀자로 학문이 잇스면 팔자에 흠결이된다고 녀자의 지식을 유치케함니 그런고로 평성소견이 침선녀공과 주식제스에 지나지 못하고 소문이 괴도나 못구리에 넘쳐못함야 일

성영욕을 남자의 후박으로 인정하고 일동일정을 남자에게 의뢰함여 비참한디경에 빠지니 우리국민의 평성력스를 서양녀자와 비교할즉 엇지 기탄없이 안이오

설스 기명에 유지하는 자들도 잇다함나 기명의 효능(效能)은 망연히 무엇인줄은 모르고 음난방탕함 악습만 속습함야 풍기를 문란함며 레절을 피손함야 종종히 남자의 비방을취하고 녀자교육에 방해를 일우니 이것이 일층주의(一層主義)이오

아모조록 우리국민은 용감력을 분발함야 부피함 사상을 흥취하고 암미한 문견을 개발함여 우리 담당한 권리를 남자에게 양두치 맏시다

여러부인 사회가 박수갈채하고 수괴심이 극함의 감각심이 발동함야 그전부 피호스상을 버리고 학문에 용진함다라 정숙은 연설을 파후후에 려관으로 돌아오다가 비를맞아서 길가초가집 첨하에 들어서 비를피함다니 그집에서 티문여는소리가나며 철십여세가량은된 늙은령감이 시샘건 두다리를 넓적다리까지 혈신것어붓치고 물고를 더노흐러가든지 종가례를집고 샷갓에 곱방

뒤를돌고 나오다가 눈결에 정숙을보고

어디로 가시는 량반이 비를맞나 게십닛가

(정) 마침 이리로 지나다가 비를맞났소

(령) 감히 안되엿습니다그려 비는아즉 길새가 못되엿는디 첨하기슭에서  
섯다가 락슈물에 의복이 저절넘려가 잇스니 제집방은 루추하나 좀잔 들  
어 안즈시오

(정) 대단이 불안하오

(령) 천만의 말씀도 하시니구 인간근처에 오섯다가 한데서 지니실슈가 잇  
나요

정숙이는 감스하다 여러번 치스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코구멍만흔방에 조희  
홍장도 붓치지 안이하고 려덩이며 바람벽에 몬지와 거의줄은 던보국에 던  
보줄 열기듯 비인틈업시 열키여 늘어젓고 어둡컴컴 하기가 주야를 분간못  
할만흔디 오즘스독을 방문업헤 못어 노앗는고로 지리고 더러운넘시는 코를거  
슬너 구역이 나오는지라 잔신이 코를 틀어막고 안젓더니 려감이 일변들스보

틈에 끼워두엇든 기적도 나려 몬지를 툇스썩러 퍼놋코 안기도 청하며 불이  
나케안으로 들어가더니 입담비 혼모숨을 보기쫓케 썩여다 기적바닥에 노  
흐며 게스불화로와 오동빋이된담비타를 안동하여 뇌노흐며 담비를 권하느  
지라

(정) 로인이 넘오근념을하니 대단히 감스하고 불안하나 담비는 근본못먹소

(령) 흥시속량반은 안이시로구

지금은 엇던 세상인지 디강이에 피도쳐 말으지못흔 어란것들도 담비를  
일슈먹는디

웨기슴이가 안이라고 그리하시오

(정) 천만의외 말씀이오 본리 담비를 못먹습니다

주인령감은 손남디점술 제구를 다출혀 노흔후에 게스불화로를 두무름틈에다  
잔썩치고 안더니 우거지갓흔 엽초를 침을 투스빋터 곰방디에 달구질을하여  
가며 담아가지고 게스불에 폭파뭇고 식샓기 부르는 소리로 썩스썩쌀며 안  
젓다가 큰 기침을 두어번하더니